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합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임조각 등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60)070-1300

지구촌 '디지털 경전' 정보호환 눈앞에

대만 '전자불전회의' 20여국 학자 70여명 참석



가상공간에서 불법을 펴고,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18일부터 22일까지 대만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요람인 중앙연구원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바로 전자불전회의(이하 'EBTI', Electronic Buddhist Text Initiative), '전자 경전을 만드는 것을 발의(發議)한다'는 회의이다.



EBTI 회의의 정경. 이종철교수(정신문화연구원)가 산스크리트어 전자사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교수의 산스크리트어 전자사전은 올 8분기 미국 UC 버클리에에서 CD 타이틀로 발간된다.

'한문경전 전산화' 놓고 열띤 토론 韓 '고려위드'-日 '문자경' 주목 英·泰 경전 이미지 DB '수준급'

경전연구 신수대장경에 편중 '고려대장경 세계홍보 관심'

가상공간에서 불법을 펴고,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18일부터 22일까지 대만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요람인 중앙연구원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바로 전자불전회의(이하 'EBTI', Electronic Buddhist Text Initiative), '전자 경전을 만드는 것을 발의(發議)한다'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20여개국에서 70여명의 학자들이 5박6일 동안 경전과 문헌 그리고 예술 등을 주제로 10여차례 회의를 갖고, 각국에서 진행하는 불교정보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불교정보화와 관련 유일한 국제회의인 EBTI 회의는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불교정보를 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키우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불교학계의 연구환경이 획기적인 정보기술인 인터넷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의 4비트체계의 '고려위드'와 손바닥 크기의 팔리어경전의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피터 스킵링박사(태국 팔리어경전학회)의 연구가 관심을 모았다. 인터넷상에서 한문·팔리어경전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디지털 불교의 세계'가 상을 다가온 것이다.

한문·팔리어·산스크리트어·티벳어경전에 관한 △전산화 △사전 △문헌정보 등이 논의되고 △불교정보화를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소개된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스님)와 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수·시리얼 캐니)에서 각각 참여해 〈한국불교전서〉와 원효전서 전산화 계획을 소개했다. 코세이시교수(일본 코마자와 유니버시티)와 수잔 윌트필드(영국 국립도서관)는 동양본 경전 데이터베이스와 과정을 발표했다.

미번 프셔박사(미국 루트스기술 연구소)는 티벳어 문헌을 윈도우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로버트 힐튼박사(고전입력프로젝트)는 중국·인도의 고전을 입력하는 작업을 각각 소개했다. 민 바하두르 사키야박사(드림랩사)는 '티벳어 예제사전'의 전자본(本)의 시범판을 시연했다.



대만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EBTI 회의'에는 역대 회의보다 많은 한국인 학자들이 참여했다. 중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EBTI 한국지부로 선정됐다.

한문경전 전산화 분야에서 한국·중국·일본 등은 '컴퓨터에서 읽혀지지 않는 한자', 즉 미상(missing) 한자를 구현하는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했다.

한국의 고려대장경연구소는 4비트체계의 위드프로세서 '고려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성형 한자를, 일본의 모치로센터는 문자경(文字境)이라는 이미지형 한

자물, 대만의 중국불교전자경전협의회는 2비트체계의 조합형 한자를 각각 개발해 '미상' 한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상' 한자는 지금까지 EBTI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는 이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2만여자의 한자는 한문대장경의 한자를 포괄하지 못한다. 한자 음(音) 혹은 한자의 형태를 조금씩 변형시킨 '이체자' 때문이다.

그러나 한문경전 전산화에서 한국에서만 고려대장경이 연구될 뿐 일본·대만·중국·미국에서는 대장신수대장경에 대한 정보화만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불교학계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고려대장경'의 운명을 디지털 고려대장경은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받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상의 언어적 문제를 뛰어넘은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팔리어경전 전산화는 인터넷에서 벌어질경, 티벳어장경 등 서로 다른 대장경에 실린 동일한 경전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사전 개발 및 원전(原典) 보존계획도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EBTI는 18일 운영위원회를 소집, 종림스님을 EBTI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중국대 전자불전연구소를 한국지부로 결정했다. 또 2000년 회의는 1월경 미국 UC 버클리에에서, 2001년 회의는 중국대 전자불전연구소에서 8월경 각각 개최할 것을 계획했다.

보광스님(전자불전연구소장)은 "연구진과 정단장비 등 인력과 장비가 풍부한 대학교의 장점을 이용해 2001년 EBTI 회의를 준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EBTI는 미래사회가 멀티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구축과 이용이 가능한 시대이며, 불교계도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회의였다.

대만=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EBTI 새회장 선출 종림스님 '2001년 서울회의 준비에 만전'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EBTI(전자불전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회원국들의 기대가 모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죠."

대만 중앙연구소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99년 EBTI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스님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결정'보다는 '제안(提案)' 성격을 갖는 기구인 전자불전회의의 회장직은 결코 감투가 아니라는 것이다.

종림스님은 "2001년 대회는 연구성과를 나누고, 최신의 경전 전산화 길을 찾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시기에, 지식과 정보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불교경전 및 문헌 정보화를 추진하는 국제단체의 새 회장에 종림스님이 선출된 것은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축적해 온 정보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경전전산화 인력기출 우수학인

EBTI 참석 주요 학자들

- 수잔 윌트필드 (영국, 국립도서관 연구원)=그녀는 영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양본 경전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다. 10여년간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동양본 경전을 색인·분류하고 이미지 그래픽을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것.
- 토미오 후쿠야마 (일본, 모리코 포트센터 원장)=그는 '문자경(文字境) 폰트' 개발자. 이 폰트는 대장신수대장경 데이터베이스의 '미상' 한자(Missing Character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 트미미지트 반치코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불교학술원, 원장)=그는 70년대부터 티벳 장경을 발굴·조사해 온 러시아와 부랴트공화국의 디지털 불교의 산구자. 지금까지 모은 티벳장경 150여종과, 2000여종의 문헌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 존 헌팅턴 (미국, 오하이오대 교수)=그는 20여년간 인도·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 찍은 불교문화 및 예술품 사진을 모아 인터넷에서 모아 제공하고 있다. 헌팅턴교수는 내년 상반기에 방한해 한국불교예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 토마스 던컨 (미국, UC버클리에 교수)=그는 인터넷 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인과 소규모 단체를 지원하는 불교정보 전산화를 서로 연결, 대단위 '불교정보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양상발 (대만, 중앙연구원장)=그는 중국불교 전자경전협의회에서 신수대장경을 입력한 전자경전에 음성 데이터를 합치는 프로젝트와 부다달미학회에서 대만 고승들의 CD 타이틀 제작을 후원하고 있다.



○ '보명수'를 든 백의 관음상' (부분). 조선시대 작. 인취사.

생명수 채워 중생구제에 사용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천수관음의 40수(手) 중에 병을 든 오른쪽 한 손을 군지수(軍持手)라 하는데 그 손에 든 정병에는 생명수가 들어 있어 이 병에 든 물로 중생구제를 한다. 또 관음보살이 든 정병에는 연꽃이 꽂혀있기도 하는데 연꽃은 병오리가 맺힌 모습, 반개한 모습, 활짝 핀 모습 등으로 깨달음의 정도를 나타낸다. 보현보살은 불타의 이(理) 정(定) 행(行)의 덕을 말아보는 보살로 머리에 쓴 관의 앞쪽 중앙에 보병(寶瓶)을 입으로써 중생구제를 나타낸다.

서양에서도 병속에 든 물은 생명의 원천, 풍요, 성장을 나타내며 성배와도 관련이 있다. 병속에 든 물은

의식을 치르거나 기도전, 또는 비를 빌 때, 손을 씻는 데에 사용한다. 기독교에서 백합이 꽂힌 병은 수태고지(受胎告知)를 나타내는 동시에 순결한 영혼의 육체를 상징한다.

왼쪽 그림은 '보명수를 든 백의 관음'이다. 감로수로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려는 관음보살의 자비를 불수 있는 그림이다.

오른쪽 그림은 하일리겐크로이츠의 화가가 그린 '성녀 카리아의 죽음' 부분이다. 금색 옷을 입은 천사들이 병을 들고 있다.

혁립(예전 법화암 주지)



○ 하일리겐 크로이츠 작 '성녀 카리아의 죽음' (부분). 1410년. 위싱턴국립미술관 소장.